

민족 정기 말살하려던 만행 고발 이름·소품으로 일제 강점기 '진혼'

600만 관객 돌파... 영화 '파묘' 리뷰

윤봉길·고영근·이화림 등 독립운동가 이름 차용
0815·1945·0301 등 차 번호에도 주제의식 담아
곳곳에 기묘한 한국적 무속신앙 분위기 형상화
비극의 역사 환기 시키며 '오컬트 진수' 보여줘



'대살곳' 중 화림(김고은 분)이 숲을 질하는 시그니처 장면



장 의사 영근(왼쪽부터)과 풍수사 상덕이 관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무당 봉길(이정재 분)이 저주나 살을 뜻하는 한자를 팔에 새기는 장면.

무녀가 섬섬옥수로 칼을 집어 든다. 악귀를 내쫓는 '대살곳'을 펼치기 위해서다. 그가 뺨에 솟덩이를 세줄 칠할 때는 점신한 자의 면모도 엿보인다. 순간 우리 민족을 표상하는 호랑이가 떠오른 건 왜일까. '파묘요'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자 일꾼들은 못자리를 파(破)한다. 이 옥고 땅을 파던 삼자루가 관에 막히고 그 속에서 '협한 것'이 느껴진다. 한국식 오컬트를 표방하는 영화, '파묘'다.

지난달 22일 스크린을 강타한 '파묘'는 '사바하', '검은 사제들'로 알려진 장재현 감독의 신작 미스터리물이다. 개봉 첫날부터 오프닝 스코어 '33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의 봄' 아성을 무너뜨렸으며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개봉 11일째인 4일 600만 관객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 '1000만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든 평가다.

영화는 조선의 풍수와 음양오행을 통해 민족정기를 말살했던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상징적 작품이다.

그 디테일은 인물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작품 초입에 등장하는 박지용(김재철 분)은 친일파 박재순·이지용의 이름에서 착안했다. 그의 의뢰를 받고 미국으로 향한 무당 화림(김고은)과 봉길(이도현), 그리고 대통령 영도 말한다는 베테랑 장의사 영근(유해진), 풍수사 상덕(최민식)도 마찬가지……. 이들 '파묘 카르텔'의 배역명도 각각 독립운동가의 실명에서 본했다.

또 영근의 운구차 번호(1945)와 상덕의 차량번호(0815), 화림의 차량번호(0301)도 주제의식을 함의한다.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3·1절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들은 '파묘'가 공포물이지만 동시에 일제강점기를 진혼하는 역사물임을 짐작케 한다.

이를 위해 기묘한 한국적 무속신앙의 분위기를 잘 형상화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2m가 넘는 흙더미를 쌓고 나무 50여 그루를 심는 등, 1200여평 부지의 세트장을 '악지' 중의 '악지'로 만들어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중 상덕이 묘지의 흙을 맛보는 '흙 먹방' 씬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읍지에서는 쇠맛, 양지는 된장 맛이 나 풍수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장면은 과학성 등을 넘어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와 풍수사로서 상덕의 전문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한편 파헤친 묘지에는 말뚝 역할을 하는 일본 오니(귀신)의 관이 접장 돼 있었다. 쇠말뚝을 숨기고 독립운동가의 눈을 피하려 관을 중첩해서 매장하던 일제의 교묘한 술책이다.

긴장감이 고조될 때쯤 뱀의 몸에 사람 얼굴을 한 설화 속 괴물 '누레온 나'가 등장한다. 호불호가 있겠으나 오컬트 명작으로 손꼽히는 '곡성'에서 괴물이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겼던 것과는 달리, '파묘'는 귀신이 관객들 앞에 정면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이에 맞서는 도굴꾼들은 자신들의 도구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새기고 혈투에 임한다. 이들은 독립의열단체 철혈단(鐵血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다.

장대한 시작에 비해 다소 힘을 잃은 후반부는 약간의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박지용이 호텔에서 도깨비에 빙의돼 일제 제식에 맞춰 한국신민서사를 읊는 대목, 복수귀 '오니'의 악랄함에 집중해 일본의 음양사 기순애의 내러티브를 풀어내는 대목 등은 '파묘'가 치밀한 서사와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입증한다.

일제는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한다는 이유로 접장은 물론, 백두대간에 말뚝을 심었다. 작중 '여우(일본)가 호랑이(조선)의 허리를 끊었다'는 대사가 아프게 읽혔던 이유다. 영화는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완곡하게 떠올리게 하면서, 한국식 정취에 일본의 소재를 녹여낸 독특한 오컬트의 진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기예 전수 받으세요

광주문화재단, 판소리 등 13개 분야 내일까지 수강생 모집



무형문화재 이복수 악기장(왼쪽)의 작업실에 모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악기 제작 과정 수강생들이 아쟁에 현을 붙이는 마무리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올해 전통문화예술 강좌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6일까지 선착순 12명.

강좌는 광주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에게 직접 기예를 전수받는 프로그램이다. 초·중급반은 물론 판소리반, 민요반으로 구성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4강좌(심청가, 춘향가 등), 판소리 고법, 가야금 병창, 전통음식 2강좌, 탕화, 미니장구만들기, 민화 등 총 13개 분야다. 오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1회씩 운영하며 각 강좌마다 총 15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방성춘, 이순자를 비롯해 판소리 고법 양신승, 가야금병창 문명자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 탕화는 무형문화재 탕화장 보유자 송광무가, 장구만들기는 악기장 보유자 이복수가 맡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이성임이 민화 강의를 담당한다.

조선왕조의 궁중음식과 국, 탕 등을 만드는 시간도 마련된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며 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 최영자, 이애섭이 각각 강의한다. 수강료 10만원(재료비 별도), 전통문화관 누리집 등에서 접수. /최류빈 기자 rubi@

음성으로 텍스트 즐기는 '소설 낭독'

광주전남작가회의, 8일 기역책방

소설을 즐기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줄거리를 생각하며 정독을 하는 법이 있고, 기억에 남는 문장을 소리 내 읽는 방법이 있다. 어떤 독자는 소설을 모티브로 제작된 콘텐츠를 찾아 감상하기도 한다.

음성을 통해 텍스트를 즐길 수 있는 소설 낭독은 고전적인 감상 방법 가운데 하나다. 기억에 남는 문장을 낭독하는 것은 리마인드 효과를 준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가 소설 낭독하

를 연다. 소설 분과(분과위원장 김현주)에서 마련한 이번 '소설 낭독의 힘'은 오는 8일 오후 5시 기역책방에서 진행되며 낭독의 텍스트는 신입회원(강애영, 김미용, 기정옥, 채정, 손민두)들의 작품을 우선 선정했다.

소설 분과에서는 그 외 회원들의 신청도 받는다. 낭독회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3월 5일 소설 분과위원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낭독회 이후에는 오후 7시 저녁 식사도 마련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양고전 지혜와 사상 톺아보기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 6월27일까지 동양고전강독반 '논어' 등 강좌

사서 가운데 하나인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엮은 책이다. 공자가 강조한 최고의 덕목은 '인'이다. 전국시대 철학자 한비는 법가사상을 주장했는데 신상필벌과 엄정한 법치를 강조했다.

동양고전인 '논어'와 '한비자'에는 시대를 초월한 삶의 지혜가 응축돼 있다. '논어'와 '한비자'를 토대로 동양고전의 지혜와 사상 그리고 오늘의 문제 등과 연계해 톺아볼 수 있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중국인문연구소(소장 오만중)가 진행하

는 동양고전강독반 강좌가 그것. 강의는 4월부터 6월 27일까지(매주 목 오전 9시) 인문대 1호관 206호에서 펼쳐진다.(온오프라인 동시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

오만중 소장은 "고전 원문 읽기는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물론 오늘의 삶의 양태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고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